



## 미 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도 AI,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18 일(목)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추가 인상 시사성 발언, 경기선행지수 13 개월 연속 하락 소식에도, 차주 부채한도 협상 기대 속 엔비디아(+4.9%), 마이크로소프트(+4.1%), 넷플릭스(+9.2%) 등 AI 및 반도체주,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9%, 나스닥 +1.5%).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0.6%(MoM)으로 전월(-1.2%)에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예상치(-0.6%)에 부합. 집계 측은 1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2분기부터 시작되는 경기 위축이 올해 중반까지 완만한 침체로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밝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2 만건으로 전주(26.4 만건) 및 예상치(25.4 만건)를 모두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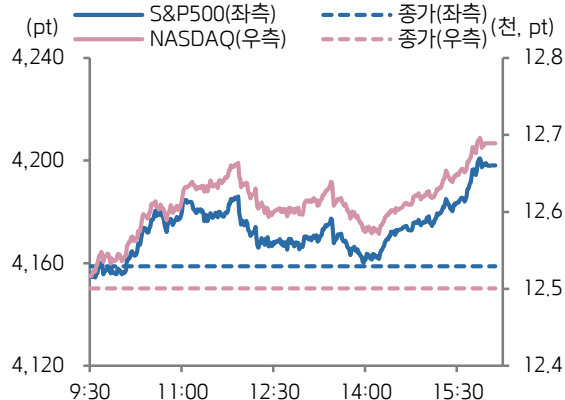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7 일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18 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부채한도 합의에 도달할 길이 보인다면 다음주에 하원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 둔화 속도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약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금리인상과 동결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있으나, 1970 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평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향후 수주 동안 경제 지표에 따라 6 월 FOMC 에서 금리인상 중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 동시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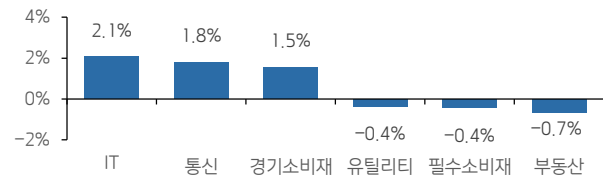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추가 정책을 단행하기 전에 금리인상의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동하는 편이며, 1 년의 시차는 고금리 정책이 수요에 반영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설명.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은행 스트레스,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2 분기에 미국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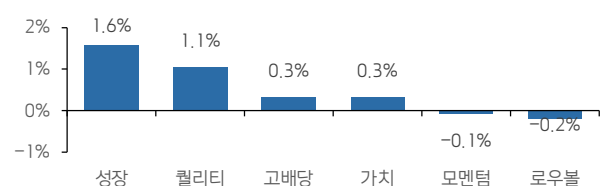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15.40	+0.83%	USD/KRW	1,333.93	-0.29%
코스피 200	329.84	+0.99%	달러 지수	103.55	+0.65%
코스닥	835.89	+0.2%	EUR/USD	1.08	+0.04%
코스닥 150	1,259.22	-0.59%	USD/CNH	7.05	+0.02%
S&P500	4,198.05	+0.94%	USD/JPY	138.64	-0.05%
NASDAQ	12,688.84	+1.51%	채권시장		
다우	33,535.91	+0.34%	국고채 3년	3.307	+3.2bp
VIX	16.05	-4.86%	국고채 10년	3.359	+3.9bp
러셀 2000	1,784.86	+0.58%	미국 국채 2년	4.252	+9.8bp
필라. 반도체	3,223.49	+3.16%	미국 국채 10년	3.646	+8.2bp
다우 운송	14,003.33	+0.46%	미국 국채 30년	3.904	+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67.45	+1.02%	WTI	71.86	-1.33%
MSCI 전세계 지수	655.94	+0.63%	브렌트유	75.86	-1.43%
MSCI DM 지수	2,840.12	+0.68%	금	1978.3	-1.27%
MSCI EM 지수	978.16	+0.24%	은	23.5	-1.08%
MSCI 한국 ETF	61.20	+0.77%	구리	368.15	-1.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3.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엔비디아 등 AI 및 반도체주 강세로 인한 국내 관련주 수급 여건 호전 가능성 3. 이차전지 업종 조정 마무리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2 만건(25.1 만건, 전주 26.4 만건)을 하회. 전주 대비 2.2 만건 감소했는데 지난주 수치인 26.4 만건의 증가폭과 일치 (4 월 넷째주 24.2 만건 → 5 월 첫째주 26.4 만건 → 5 월 둘째주 24.2 만건). 최근 2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가 높게 나왔던 것은 매사추세츠주에서 부정수급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수치가 되돌려진 것으로 보도. 이런 노이즈를 제외하더라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연초 이후 22 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나, 미국 고용시장의 과열이 해소되는 속도는 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임.

강력한 고용시장과 더불어, 식료품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월마트가 저가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소비가 견조한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 이에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며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3.65% 대까지 상승, CME Fed Watch 상 6 월 25bp 추가 금리인상 확률이 36%대까지 상승.

다만 아직 6 월 FOMC 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을 확인해야 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은행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으며, 12 월 금리 전망치 5.00~5.25% 10.1%, 5.25~5.50% 확률은 1.1%로 낮은 수준. 맨하임 증고차 가격지수 하락, 유가 박스권 등락 등의 요인들로 5 월 CPI 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업 측면에서, 타겟, 홈디포, 월마트 실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재고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16 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4 월 기업재고는 전월대비 -0.1%(예상 0.0%, 전월 0.0%)로 감소하며 재고조정의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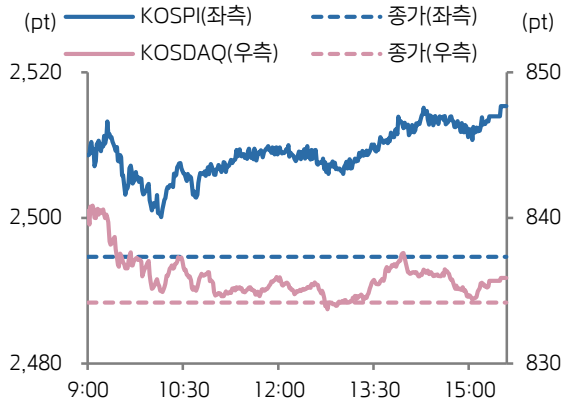
컨센서스를 하회하여 경기침체 우려를 부각시켰던 4 월 소매판매의 세부항목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 건설자재 등은 전월대비 상승, 의류, 백화점 등에서 감소폭을 축소한 것에 주목. 일부 경기 소비재 수요가 우려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경기 연속락에 무게를 실는 것이 바람직.

18 일(목) 국내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지방은행 리스크 등 증시 상단을 제한하던 요인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며 3 일연속 상승 마감(KOSPI +0.83%, KOSDAQ +0.20%)

금일 역시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 AI 가 이끄는 엔비디아(4.97%), AMD(4.03%) 등 성장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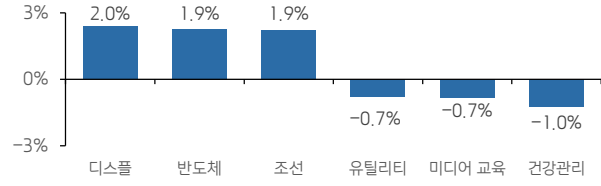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2,500pt 를 상회. 4 월말 이후 200 주선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지수가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수 영향력이 큰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여야 함. 부채한도 관련 협상은 21 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9 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매크로 환경은 긍정적이며, 10 조원을 돌파했던 코스닥 신용잔고의 감소와 함께 이차전지 업종의 조정도 마무리되고 있어 수급 환경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실적 모멘텀이 종료된 이후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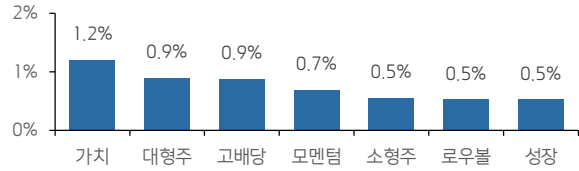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